

공포영화의 계절이 돌아왔다

오컬트 호러·저주·환각 공포 등 더위 식혀줄 '납량특선'

낮 기온이 벌써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시작되면 극장가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 바로 유서 깊은 '납량특선' 공포영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 더위를 식혀줄 공포영화들이 줄을 잇는다. 외화와 국내 영화가 고르게 포진했고 세부 장르도 각양각색이어서 입맛에 맞게 골라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지난 4월 개봉한 '곤지암'이 역대 한국 공포영화 중 두 번째로 많은 267만 4,582명을 불러들이는 성공을 거둔 데 이어 제철을 맞은 공포영화가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오컬트와 호러의 결합 '유전'

주인공 '애니'는 모험 아티스트로 정신과 의사인 남편 '스티브' 사이에서 고등학생 아들 '피터', 틱장애가 있는 딸 '찰리'를 두고 평범한 일상을 산다.

그러나 일주일 전 괴팍한 성격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엄마의 유령이 집 안에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딸 찰리는 장애 증세가 더 악화한다.

심신이 지친 애니에게 조안이 접근한다. 애니는 조안을 경계하지만 점차 그녀의 위로에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고, 조안의 권유로 영혼을 불러내는 의식을 하게 된다.

공포영화의 걸작 '시스 센스'에서 주인공 소년 폴의 엄마 역할을 맡은 토니 콜렛이 애니 역할을 맡아 혼신의 연기를 선보인다. 토니 콜렛이 작품 전체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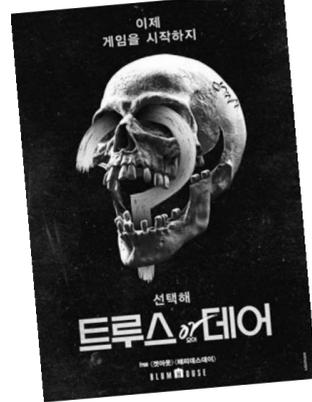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에 사로잡힌 애니의 심리상태를 표정만으로 절묘하게 표현해낸다. 특히, 영화 후반부의 무표정한 연기는 섬뜩할 정도다.

애니가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은 1990년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유행한 '분신사바' 놀이를 연상시킨다.

전반부는 스티븐처럼 흐르지만, 후반부로 접어들면 피와 살이 튀는 호러와 악령과 종교의식이 결합한 오컬트 영화의 특색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 저주와 게임의 결합 '트루스 오어 데어'

'겟 아웃', '해피 데스데이', '파라노멀 액티비티' 등 공포영화 명가로 손꼽



히는 블룸하우스의 신작이다.

영화 제목은 '진실 또는 도전' (TRUTH OR DARE)이라는 의미로 진실을 이야기하거나 벌칙을 수행해야 하는 게임에서 따왔다. 우리나라 '진실 게임'의 미국 버전인 셈이다.

제목 그대로 영화 주인공들은 멕시코의 버려진 수도원에서 '트루스 오어 데어' 게임을 한다. 문제는 게임이 살아있다는 것.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게임은 이들 곁을 떠나지 않고 진실과 도전 중 선택을 강요한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목숨을 잃는 사람이 늘어가고 이들은 게임을 멈출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된다.

분명 악령이 등장하는 공포영화지만 정통 공포물보다는 복잡하게 설계된 게임을 해체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다. 여기에 블룸하우스다운 절묘한 심리전이 곁들여져 몰입도를 높인다.

게임은 아무 때나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참가자들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악마의 모습을 한 채 불쑥 나타나 악역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영화가 진행될수록 참가자들이 어떻게 게임의 저주를 풀어내고 살아남을지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예상과는 다소 어긋나는 결말을 맞이한다. 게임을 끝낸 것이 아니라 판을 더 키웠다고도 볼 수 있다.

◇ 환각이 주는 공포 '데자뷰'

'미스터리 스릴러'로 장르를 분류했지만, 공포영화에 가까운 설정이 곳곳에 묻어있다.

특히 영화 초반 여주인공 '지민'이 겪는 환각을 통해 마치 호러 영화를 보는 듯한 공포 분위기를 자아낸다.

늦은 밤 약혼자 '우진'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지민은 그날 이후 매일 환각에 시달리게 된다. 견디다 못한 지민은 경찰에 찾아가 자백하지만 수사 결과 그날 밤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민은 계속해서 그날의 환각을 보게 되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약혼자 '우진'은 다정하게 지민을 보살피지만 가끔 드러나는 그의 섬뜩한 얼굴은 지민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담당 형사 '인태'도 지민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민을 연기한 남규리와 2007년 '마파도2' 이후 11년 만에 복귀한 이규환의 열연이 돋보인다. 그러나 다소 식상한 전개와 허술한 연출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다큐멘터리 '두 개의 일기'

광주MBC

5·18 다큐 무료 상영회

80년 진실 알리는 '두 개의 일기', '그들의 광주'

15일 광주독립영화관서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송일준)가 5·18다큐멘터리 무료 상영회를 갖는다.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상영회에는 2016년 작인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 (연출 김철원)와 2018년 작 '두 개의 일기' (연출 김철원)가 상영되며, 제작진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그들의 광주, 우리의 광주'는 광주의 참상을 알리다가 희생된 전국의 이름을 없는 시민들을 조명한다. 전국 각 지역에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희생됐지만, 5·18의 기록이나 평가에서 배제돼온 희생자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방송 당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광주 출신 배우 박철민 씨가 내레이션을 맡은 이 다큐멘터리는 5·18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서울 종로의 기록과 회관에서 광주학살을 알리는 전단을

뿌리고 투신한 고 김의기 씨를 비롯해 분신을 통해 광주를 알린 부산 출신 노동자 고 김종태 씨 등의 삶과 죽음을 대해 이야기 한다. 고 김종태 씨는 80년 6월 초 '광주시민의 낮을 위로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뿌리며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들어주는 이가 없자 결국 분신을 택했다. 특히 5·18 2주기 집회를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간 옥고를 치르거나 나온 후 정신질환이 발병한 고 김학목, 차호정 씨의 비극은 이번 취재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이례적으로 전국 16개 지역MBC에서 방송됐던 '두 개의 일기'는 5·18 당시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불의에 맞섰던 광주 출신 윤상원 열사,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대구 출신 전태일 열사의 관계를 일기를 통해 살펴본다. 유족들이 보관중인 두 열사의 일기를 확보하고 주변 인물의 증언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며, 자신의 목

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는 무엇인지 추적한다.

특히, 제작진들은 전태일 열사의 가장 애절한 친구 정원섭 씨를 미국에서 만나 언론 최초로 공개했다. 정 씨는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기 전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48년 만에 받게 됐다.

또, 11권에 달하는 윤상원 일기와 전태일의 일기 7권의 수기를 일일이 촬영해 친필 기록을 확보해 다큐멘터리 타이틀 서체를 제작하기도 했다.

광주MBC는 "방송 이외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5·18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가 5.18의 가치를 공유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번 상영회는 80년 5월의 진실을 알리고 관심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영회는 오는 15일 오후 4시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62-360-2300. /이보람 기자

추자현, 의식불명 사실무근

일반병동서 회복 중... 지인들과 문자도 나눠

최근 첫아들을 출산한 배우 추자현(39) 측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추자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0일 "추자현이 출산 후 경련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이송된 후 열흘째 의식불명이라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추자현은 현재 일반병동으로 옮겨 회복 중인 상태에 있으며, 주변 지인들과 문자도 나누는 등 무사히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처음 입원 시 폐 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의식불명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추자현이 출산 후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입원 열흘째인 지금까지 의식이 없으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부인하며 "퇴원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사히 회



복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추자현은 중국 배우 위샤오광(于曉光·37)과 사이에서 첫아들을 출산, 당일 밤늦게 경련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30살 안팎' 입대 스타들 건강 빨간불

발목 수술 지드래곤·어깨 통증 준케이 등 병원 신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스타들이 병원 신세를 졌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날아든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 고된 스케줄을 소화하다 지친 몸으로 입대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통 만 19~21세 청년들이 받는 훈련을 30세 안팎에 받는 영향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0)은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았다. 2월 27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그는 입대 전부터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중화권 매체는 지드래곤이 훈련소에서 오른쪽 발목에 보호대를 차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를 2PM의 준케이(본명 김민준·30)도 최근 어깨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가 톱 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준케이가 어깨 통증 외에는 이상 없이 건강하게 훈련을 받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달 8일 강원도 양구 육군 2사단 노도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그를 엠블랙 출신의 배우 이준(본명 이창선·30)은 지난 3월 육군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 지난해 10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그는 입대 전부터 고통받은 공황장애로 복무 중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호전되지 않아 현역 복무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지난달 발목 수술을 받은 빅뱅의 지드래곤.

그를 2AM의 임슬웅(31)은 지난 4월 갈비뼈 이상으로 육군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다. 임슬웅은 2011년 '12번째 갈비뼈 증후군'이라는 갈비뼈 신경이상 희귀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지난해 11월 입대 후 훈련을 받으며 증상이 악화했다고 소속사 씨이더스 HQ는 설명했다.



KBS, 2년 만에 개그맨 공채 모집

침체된 '개콘' 분위기 반전 가능성 주목

KBS가 2년 만에 신인 개그맨 공채에 나선다.

오랜 경험에 노련함을 자랑하는 선배 군단과 대조적으로, 패기와 신선함으로 뭉친 신인 개그맨이 대거 탄생해 잠재한 개그 무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S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KBS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2018 KBS 신인 코미디 연기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KBS가 신인 개그맨 공채에 나서기는 2016년 6월 이후 약 2년 만으로, 이번에 합격하는 신인들은 32기가 된다.

1차 서류 전형, 2차 실기와 면접, 3차 최종 면접으로 선발되는 올해 신인 개그맨들은 소정의 연습 과정을 거쳐 공채 개그맨 자격을 얻고, KBS와 1년 전속계약 체결 후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받아 활동하게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로 소극장 등을 무대로 활동 중인 개그 단체 차원도 참가할 수 있다고 KBS는 이번엔 명시했다. 채용 인원은 1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오랜만의 공채 소식에 선배 개그맨들도 '뚝뚝한' 후배들을 뽑기 위한 홍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개그콘서트' 터줏대감 김준호와 김

대회를 비롯해 강유미, 강민경, 김지민, 박휘순, 유민상 등이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해 '선배들과 자유로운 아이디어 토론', '오직 개그만을 위한 몸매 관리', '어디서도 경험 못할 스타일링 체험' 등을 특전(?)으로 내세워 웃음을 줬다.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송 중인 KBS는 현재 분위기가 반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그콘서트'가 약조권 속에서도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해 선배 군단의 대거 투입에도 시청률이나 화제성이 그다지 살아나지 않았다.

'개그콘서트' 시청률은 지난해 말 7~8%대(닐슨코리아 기준)에서 최근 5~6%대로까지 떨어졌고, 초반 화제성을 견인한 김대희-신봉선-장동민의 '대화가 필요해 1987' 코너도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퇴장한다.

개그맨 사이에서도 개그맨들에게 '집'이나 마찬가지로 방송 개그 무대 위태롭다는 것은 개그맨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그콘서트'를 연출하는 양혁 PD는 "오랜만에 신입을 모집하는 만큼 새로운 감각의 연기자들이 선발돼 대한민국 코미디의 발전이 이뤄질지 바란다"며 "코미디 연기자 신구간 조합을 도모해 '개그콘서트'도 더 재밌게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연협뉴스